

표준화 및 시험인증 서비스 제공기관

TT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1988년 설립된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 김원식, www.tta.or.kr)는 정보통신 분야의 표준화 및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융합시대를 대비한 다양한 표준을 제정·보급하고 있으며 GS(우수국산 소프트웨어) 인증을 비롯한 네트워크, SW, 디지털방송, 이동통신에 대해 영역별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시험환경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체를 위한 개방시험실(Open Lab) 운영 및 시험기술지원(Pre-test) 서비스, 테스트베드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TTA 주요 사업

TTA는 정보통신 분야의 새로운 표준을 발굴하고, 각종 TTA·IT표준의 제정, IT표준 제품의 시험 및 인증 서비스를 One-Stop으로 서비스하는 민간 자율의 IT 표준 선도 기구이다. 현재 6,883건의 TTA IT표준이 활용되고 있다. 또한 2001년도에 새로이 발족한 시험인증연구소를 통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디지털방송, 이동통신 분야를 대상으로 6,000건의 시험인증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Bluetooth SIG, Tolly, VeriTest, GCF, PTCRB, CTIA, CCF, DMB, WiMAX FORUM 등 해외 시험인증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국내 기업이 국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소비하는 시간과 비용 절감에 기여하기로 한다.

TTA의 주요 사업은 크게 표준화사업부문과 시험인증사업부문으로 구분된다. 표준화사업으로는 정보통신 관련 표준의 제·개정 및 보급, 국내의 표준화 제도, 기획 및 체계 분석, 국제표준화기구(ITU 등) 협력 및 대응활동 지원, IT 국제 표준화 전문가 지원 등이 있고, 시험인증사업으로는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디지털방송, 이동통신 분야 등에 대한 시험인증서비스 제공, 동종제품간의 비교시험(BMT), 시험전문 인력양성교육 사업 등이 있다.

최근의 주요 성과로는 2007년도에 국내의 WiBro 및 DMB에 대한 기술 표준을 ITU 국제표준에 반영하는데 성공하였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Wimax Forum 국제공인시험기관 자격을 획득하였으며, 국내 시험기관으로는 최초로 블루투스 SIG 국제공인시험기관(BQTF) 자격을 획득한 것 등이다.



개방형 실험실(오픈랩)



TTA는 올해 1월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4층에 SW시험소를 개소했다.

>>>표준화부문

① 중소벤처기업의 표준화활동 참여 기회 확대

TTA는 IT기술의 급속한 진화 및 융·복합화에 따른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IT 전 분야의 표준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표준을 적기에 개발하기 위해 정보통신표준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기존 정보통신표준화위원회 참여는 협회 사업 참가자만이 가능했으나 IT 기술이 타 산업 분야와 빠르게 융합됨에 따라 관련 중소기업 및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표준화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표준화위원회 내 실무반(WG)의 참여를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개방토록 하고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보통신표준화활동 지원

정보통신산업은 중소기업체들의 활발한 기술혁신 활동이 큰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이에 중소기업체를 중심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정보통신표준화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된 중소벤처기업의 표준화활동 지원 사업이 올해로 6년째를 맞고 있다.

이 사업은 “업체의 정보통신표준화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세계 첨단기술과의 표준경쟁 및 핵심기술 분야의 세계표준화 초석을 마련한다”는 것을 목표로 국제표준화가 가능한 핵심기술 보유 산업체의 국제표준안 연구개발 및 국제표준화 활동을 지원한다.

③ IT중소·벤처기업을 위한 기술표준화 자문서비스

2001년부터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IT표준화 활성화 및 표준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IT중소·벤처기업을 위한 기술표준화 자문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지난 7년 동안 총 197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276회의 자문서비스를 실시했으며, 2008년에는 IT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전략분야별 기업의 애로기술에 대한 무료자문 및 서비

스를 지원(100회)할 계획이다. 자문내용은 WiBro, DMB 등 주요 기술 표준 이슈 설명 및 구현, 3GPP/3GPP2, NGN, IPTV 등 IT 국제표준화회의의 결과 및 기술 동향, 관련 기술개발 방향, IT 표준화기구 활동 방법 자문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험인증부문

① IT시험인증서비스를 통한 제품 품질수준 제고

TTA는 2001년부터 국제수준의 시험인프라를 구축하여 IT제품의 품질수준을 향상시키고 IT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시험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IT업체가 국내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국제시험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우수한 제품을 조기에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TTA가 제공하고 있는 시험인증서비스 분야는 네트워크, SW, 디지털 방송 및 이동통신 등 IT핵심 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IT업체가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시험인증 받을 수 있도록 최첨단 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② BMT 사업 추진

동종 제품간의 비교시험을 통한 구매자의 제품 구매 및 소비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BMT(Bench Mark Test)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험인증에 관한한 정부, 사업자, 제조자 등과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3자 시험인증기관인 TTA는 BMT 시험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간 TTA는 바이러스 SW 제품, 국방부의 BTL 사업 제품 등 다양한 제품을 대상으로 BMT시험기관으로서의 위상도 확고히 하고 있다.

③ SW시험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시

2003년부터 ‘SW시험전문인력 양성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매년 4회(분기별 1회)씩 실시하고 있다. 본 교육에는 국내 IT업체, 학생 등 다

양한 계층의 관계자가 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SW 테스트전문가 자격시험을 최초로 실시하여 자격증을 제공함으로써 업계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08년 핵심 주력사업

표준화 부문에서는 WiBro, T-DMB의 국제표준 성공을 이어받아 4G이동통신, IPTV, NGN, RFID 분야 등의 국제표준 선도역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u-Health, VLC, SOC, 차세대 DMB, 차세대 통합무선 재난통신 등 신규·IT기반 산업간 융복합분야 표준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표준의 리더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구축 사업으로 IT국제표준화전문가 지원확대, IT표준화전략포럼 지원과 제정된 표준에 대한 진흥과 마케팅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표준컨설팅 확대(약 100회), 기술표준관련 교육(18회)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험인증부문에 있어서는 그간 시험인증연구소가 제공해 온 블루투스, 패키지 SW, DMB, WiBro 등 시험인증 분야에 추가로 Wimedia, 텔레매틱스 SW, IPTV, HSUPA 등 IT 핵심 기술분야에 대한 시험인프라를 구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세계적 시험인증기관과의 제휴 및 국제공인시험기관 자격 획득 분야의 지속적 확대, 시험인증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및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고객이 만족 하는 시험인증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다.

<표> 시험인증 추진분야

구 분	기존 분야(72종)	2008 신규 분야(8종)
네트워크 분야	LAN/MAN(Switch, Router), xDSL, 통신응용, Server, VoIP(H.323, SIP, MGCP, MEGACO), 무선랜(IEEE 802.11a, 802.11b, 802.11e), 블루투스, 정보보호, IPv6(라우터, 단말), 광통신, ITS, 홈네트워크(게이트웨이, 홈서버, 정보가전), WPAN(UWB, ZigBee), USN, MMoIP, 차세대 PC, URC 로봇, RFID 등 28종	ULP, CTIA BT, WiMedia 등 3종 추가
SW 분야	패키지, 모바일, 컴포넌트, GIS, e-Biz, ERP, Game, SI, 교육용, 콘텐츠 개발용, 리눅스 OS, 웹 관리도구, SW 개발 도구, 유틸리티, 보안용, 홈네트워크, 스토리지, 바이오메트릭스, 디지털콘텐츠, 임베디드, e-Learning 등 21종	텔레매틱스 SW, DRM SW 등 2종 추가
디지털방송 분야	오픈케이블(케이블방송), 유럽형 셋톱박스, 미주형 셋톱박스 내장형 DTV, ATSC(지상파 방송), 위성방송 수신기, 광송수신기, 디지털 AV 인터페이스, OCAP/ACAP 데이터방송 수신기, 국내 및 미주 수출형 오픈케이블 셋톱, 지상파/케이블 데이터방송용 어플리케이션, DMB 등 13종	IPTV, DVB-H 등 2종 추가
이동통신 분야	CDMA(IS95-A/B, 1x, EVDO), 유럽 GSM, 북미 GSM (EGPRS, 850MHz), WCDMA, WiBro(W1), HSDPA 등 10종	HSUPA 1종 추가

>>>표준화 부문

2008년에는 IMT-Advanced, u-Health, 사이버보안, SOA, VHO 분야에 대한 표준화 활동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며, 바이오인식, IPTV, IMT WiBro, DMB, RFID 등의 핵심 기술 분야 표준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간 융합기술에 대한 표준화 추진을 위해 여러 기술간 합동 실무반 구성 및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IT중소·벤처기업 제품의 표준적용 개발을 통한 제품 신뢰성 향상, 경쟁력 있는 IT중소·벤처기업 기술발굴을 통한 국제표준화 추진, IT중소·벤처기업의 표준화활동 참여 유도 및 국내 표준화활동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험인증 부문

IT업체에게 제공되는 시험인증 건수를 2007년의 1,739건에 비해 16.3% 증가한 2,022건(네트워크 693건, SW 949건, 디지털방송 157건, 이동통신 223건)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DVB-H, 블루투스 ULP 등 분야의 국제공인시험기관 자격 획득 확대를 통하여 IT 업체가 원하는 시험수요를 적시에 처리해 나갈 것이다.

이와함께 TTA는 SW 분야의 GS(Good Software) 인증시험 관련 수요적체 해소를 위하여 2008년 1월부터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단지 내에 'SW품질지원센터'를 개소·운영하고 있다.

🔍 개방형 실험실(오픈랩) 운영

TTA는 약 231㎡ 규모의 개방시험실(Open Lab)을 설치하여 IT업체의 제품 개발시험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서비스를 하고 있다. 개방시험실은 IPv6, KOREN, 해외연동 시험망 등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과 최첨단 시험장비를 구비하여 IT업체가 원하는 시험 서비스를 적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방시험실은 동일 제품간의 상호연동 확인 시험을 위한 ION(Interoperability ON) 행사에 주로 사용되며, ION 행사에는 제품의 상호 운용성 시험뿐만 아니라 각종 시험기술에 대한 상호 논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간 TTA는 개방시험실을 통한 ION 행사를 IT업체 요청으로 연간 5~6회 정도 개최하고 있으며, 참여 업체는 주요 기술분야별 10여 개 업체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개방시험실은 주중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개방시험실을 이용하려면 시험인증기획팀 김찬욱 전임 연구원(031-724-0134)에게 문의하면 된다.

TTA 김원식 회장

“세계 최고 수준의 시험인증 전문기관으로 도약”

Q _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활동과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A _ 표준화부문에 있어서는 IT기술의 급속한 진화 및 융복합화에 따른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 및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표준화 활동을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참가자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WG을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및 국제표준화가 가능한 핵심기술 보유 산업체의 국내외 표준안 연구개발 및 국제표준화 활동을 지원하거나 자문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인증부문에 있어서는 개발지원시험, 개방시험실 운영, 테스트베드 제공 외에도 시험인증을 신청한 제품에 대해 품질 수준 및 제품의 완성도 향상을 위하여 기술 상담 및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험 기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벤치마킹서비스를 통하여 개발자에게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구매자에게 우수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종제품을 비교, 분석하여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험 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운영하여 시험에 필요한 테스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Q _올해 개선한 서울 상암동 SW품질지원센터의 주요 서비스 및 운영계획이 궁금합니다

A _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 위치한 SW품질지원센터(이하 상암 SW시험소)는 수도권 북부 및 서울 남서부 지역 등에 위치한 SW개발 업체



들의 시험·인증 서비스 편의도모 및 GS인증 시험 수요 증가로 인한 시험 적체 해소를 위하여 설립한 SW시험소로 벤더별 중대형 서버, 네트워크 장비 및 다양한 시험자동화 도구 등의 시험 인프라를 갖추고 GS시험·인증, VeriTest 국제 시험·인증 및 BMT(벤치마크테스트) 등의 SW시험 서비스와 SW 업체가 직접 시험할 수 있는 OpenLab(테스트베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암SW시험소 개소로 GS인증 시험기간이 6개월에서 2개월 정도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Q _앞으로 TTA를 어떤 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십니까

A _ 지금 우리는 표준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 합니다. 최근 Blu-ray 표준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IT산업에서 표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TTA는 우리나라 IT산업이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표준활동에 앞장 설 것이며, 세계 최고수준의 시험인증기관과의 기술 제휴 강화를 통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시험인증 전문 기관으로 도약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나라 제품이 세계 제일의 품질과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전 세계에 알려 우리나라 IT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